

-(으)ㄹ망정

비록 ~하지만 그래도 ...

단점을 인정한 뒤,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미덕을 내세웁니다. 형태는 -(으)ㄹ지언정과 비슷하지만, 뒤 절의 역할이 다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ㄹ망정	가난하다 → 가난할망정
자음으로 끝남	-을망정	늙다 → 늙을망정
ㄹ로 끝남	추가 없음	만들다 → 만들망정
앞 절	실제 단점	가난하다, 늙다, 작다
뒤 절	유지되는 장점	... 떳떳하다
선택할 때는	-(으)ㄹ지언정	굶을지언정 빌리지 않겠다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ㄹ 어간에 ㄹ만 붙는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. 만들다는 만들망정. 이 됩니다. 띄어 쓰지 않고 하나의 어미로 붙여 씁니다.

앞 절은 실제로 그러한 단점을 말하고, 뒤 절은 그와 상관없이 유지되는 장점을 말합니다: 가난할망정 남에게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았다.

이 점이 지언정과 다릅니다. 둘 다 달갑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만, 지언정은 더 나쁜 것을 거부하려고 그것을 선택하는 반면, 망정은 그것을 그저 인정하고 그래도 품위를 내세웁니다.

그래서 어조는 반항보다는 자존심에 가깝습니다. 문체는 문어적입니다.

■ 예문

- 1 가난할망정 남에게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았다.
- 2 몸은 늙을망정 마음은 여전히 젊다.
- 3 규모는 작을망정 내실은 탄탄한 회사입니다.
- 4 서툰망정 제 손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.
- 5 모양은 투박하게 만들망정 재료만큼은 최고를 씁니다.
- 6 느릴망정 방향은 옳다고 믿는다.

■ 비교

-(으)ㄹ지언정
꼭 구별해야 할 짝입니다. 지언정은 무언가를 거부하려고 고난을 선택하고, 망정은 단점을 인정하면서 미덕을 내세웁니다.

굶을지언정 받지 않겠다. (차라리 굶겠다) / 가난할망정 떳떳하다. (가난하지만 떳떳하다)

-기에 망정이지
같은 망정이라는 말이지만 구문이 다릅니다. 기에 망정이지는 “~해서 다 행이지”라는 뜻으로, 아슬아슬하게 모면한 일을 말합니다.

일찍 나섰기에 망정이지 늦을 뻔했다. (다행히) / 가난할망정 떳떳하다. (가난하지만)

-(으)ㄹ지라도
지라도는 가정을 양보하고, 망정은 실제로 그러한 것을 양보합니다.

어려울지라도 하겠다. (어렵더라도) / 가난할망정 떳떳하다. (실제로 가난하지만)

■ 주의

- ✗ 가난할망정 더 가난해졌다.
- 가난할망정 떳떳하게 살았다.
뒤 절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을 내세워야 합니다. 또 다른 단점을 말하면 이 어미가 할 역할이 없어집니다.
- ✗ 모양은 투박하게 만들을망정 재료는 최고입니다.
- 모양은 투박하게 만들망정 재료는 최고입니다.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ㄹ을 갖고 있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다와 같습니다.
- ✗ 굶을망정 그 돈은 받지 않겠다.
- 굶을지언정 그 돈은 받지 않겠다.
무언가를 거부하려고 고난을 선택할 때는 지언정을 씁니다. 망정은 선택이 아니라 인정입니다.